

## “현대-기아차 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은 노동자다”

서울행정법원, 노동자성 인정·계약해지는 부당해고... “현대차 자본은 시간 끌지 말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개별 사업자가 아닌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16일 현대자동차 인덕원, 송산, 신하남 대리점과 기아자동차 주례, 동촌 대리점에서 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대회 조합원들이 제기한 교섭요구를 대리점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리점 소장들이 청구 단 일화 절차를 교섭을 시작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리점 소장들이 자동차 판매연대대회 간부들을 계약해지로 내쫓은 사실을 두고 노조파괴를 위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판매 대리점 소장들은 지금까지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점주들에게 자동차판매연대대회의 교섭요구에 응하고 노조파괴를 노린 계약해지를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대리점주들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리점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대회 노동자성 확인과 대리점 부당노동행위 선고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장은 “자동차 판매는 직영 지점과 대리점 모두 똑같은 노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파는 물건, 파는 방법을 봐도 동일노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승렬 부위원장은 “자본이 마음대로 대리점 판매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 시측은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 해고자는 모두 복직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선영 판매연대대회장은 “노조를 만들고 대리점주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노조에 가입하면 해고당하기도 했다. 노사간의 교섭을 거부당하고 원직 복직 판결을

듣고라도 복직을 거부당했다”라고 현실을 고발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현대자동차 자본이 대리점주들의 뒤에 있다. 현대기아차는 오늘 판결도 시간 끌기로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고사시키려 할 것이다. 현장에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인용하며, 법리 공방을 지속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수많은 증거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요건에 모두 들어맞았다고 인정했다. 6월 대법원이 내린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 인정한 판결의 연장선이기도 하다”라고 확인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보고 고등법원,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소모적일뿐더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 맞지 않는다. 대리점 소장들은 노조파괴를 멈추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 국가가 책임진다는 한마디만 하라”

국가폭력 진상규명, 해고자 전원복직 쌍용차 범국민대회 ... “쌍용차 사태, 국가기관들이 공모한 참사”



“대통령 후보 시절 쌍용차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과 지금의 문재인은 다른 사람입니까?”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이하 쌍용차 범대위)가 8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쌍용차 국가폭력 진상규명, 손배가 압류 취소, 해고자 전원복직, 결자해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곳곳에서 모인 노동자, 시민 2천여 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대로 쌍용차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회 참가자들은 고 김주중 조합원의 분향소가 있는 대한문 앞에 모여 청와대까지 행진을 벌였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발생한 30여 명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이동식 무대를 끌고, 해고자 119명은 자신이 지고 있는 죽음과 모욕을 상징하는 그림자 인형을 업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청와대 앞에 도착해 범국민대회를 시작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자본은 회사를 잘못 운영해 먹

튀 자본에 회사를 넘기고, 노동자를 협박해 공장에서 쫓아냈다. 정부는 저항하는 노동자를 쇠몽둥이와 테이저총으로 무력 진압했다”라며 분노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쌍용차 노동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상식적인 1심과 2심 결과를 대법원과 청와대가 짜고 뒤집었다. 이 모든 범죄는 국가가 벌인 일이다”라고 정부의 잘못을 꾸짖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문에 찾아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굴뚝 농성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인증사진을 찍었다”라고 확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후보로서 벌인 정치쇼가 아니라면 대통령으로서 답해야 한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한마디만 하라”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쌍용차 투쟁 9년의 종지부를 찍고, 연대의 마음을 나누는 집회를 준비하겠다. 금속노조가 중심에 서서 쌍용차 문제를 푸는 투쟁을 조직하겠다”라고 다짐했다.

9년의 해고 기간 고통받은 쌍용차 지부 조합원들이 연단 앞에 섰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고통을 더는 다른 이들이 겪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중 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쌍용차 사태는 여러 국가기관이 공모한 참사다.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참사다. 청와대는 노동자에게 문제를 전가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우리는 쌍용차 투쟁 10년 동안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이 파탄 나는 과정을 겪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해고자 복직 너머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는 투쟁에 나서겠다.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으로 보답하겠다”라 결연한 말투로 다짐했다.

김득중 지부장과 해고자들은 자신이 받은 사회의 낙인과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그림자 인형을 몸에서 떼어내 날리는 상징의식으로 범국민대회를 마무리했다.